

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12.(월) MBC, “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'꼼수'..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” 보도 관련

- 지난해 10월 쿠팡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신고했습니다. 취업규칙이 위법이라고 국회에서 질타받은 직후였습니다. 쿠팡은 일용직 주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대로 '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겠다'고 신고했습니다.
-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. 근로계약서 별지에 '주 5일 근무'라는 조건을 계속 놓아뒀던 겁니다. 쿠팡의 이같은 '꼼수'를 노동 당국은 알지도 못했습니다.

2. 설명 내용

-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·개시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(주휴일)을 부여해야 함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임
- 하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(주휴일)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·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음
- 이에 2025.11.12.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

-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고, 해당 사업장의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음
- 앞으로도, 우리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,
 -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김영수 (044-202-7543) 오혜란 (044-202-7973)

